

## 성숙한 교회와 평신도

한국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자아 의식이 날로 강화되어 가며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평가하는 일은 대단히 희망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흔히 교회는 목회자의 힘으로만 그 힘을 가질 수 있고 평신도는 다만 숫자를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져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에큐메니칼 운동의 풍조를 따라서 복음 선교의 성격과 과제를 새롭게 검토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평신도가 결코 피동적으로 교회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흠어진 교회>로서의 그 사명과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신도 운동이 갑자기 복음 선교의 중심 문제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신도 운동이 목회자의 직분과 대립되는 것으로나 또는 교회 부흥 운동으로서만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 교회의 독특한 성격에서 생겨지는 목사의 이미지가 과거에는 카리스마적인 것이었으나 이러한 목사의 이미지가 도저히 현대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교회 부흥 운동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평신도 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어디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인가? 그 첫째는 윤리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윤리라고 하면 율법적인 행동 규범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행동 규범으로서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자세를 뒷받침해 주는 정신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윤리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윤리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교회는 그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한다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정치, 경제, 그 밖에 사회 각 분야에서 시시각각으로 내려야 할 윤리적인 결단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닦치는 대로 적당한 처세술로 순응할 것인가? 또한 시민으로서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조직과 기계화에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꾸준히 지켜나갈 생활의 태세를 갖출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시간의 여유를 두지 않고 우리에게 육박해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치면 흔히 전면 후퇴 작전을 취하지 않으면 적당히 얼버무려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삶의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을 내린다는 뜻에서 평신도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다. 그것은 그러한 윤리적인 결단을 하는 평신도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스타일 형성을 위해서도 시초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 더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 산다고 말할 적에 우리는 흔히 소금과 빛의 구실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여 남들의 모범이 된다는 생각에 먼저 사로잡히고 만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서 그리스도인은 가끔 교만한 태도나 바리새인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남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 오히려 그

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약점에 더 예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허한 태도에서 자신을 냉혹하게 돌이켜 볼 수 있고, 부르심을 받은 중의 멍에를 감당하려고 애쓰는 데서 비로소 이 세상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스타일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결단에는 늘 이러한 죄인으로서의 자아 의식이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